

日, 91年漁港예산 1千9百25億엔 農林水産省 要求 漁港漁村정비 擴大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 9월1일 1991년도 수산관계 예산으로 3천 3백97억6천6백만엔을 요구하였다.

이 중 어항정비 관계예산은 어항사업이 1천9백25억1천5백만엔(통상분 1천6백58억2천5백만엔, NTTB형 2백66억9천만엔)이고 해안사업이 1백45억8천3백만엔(통상분 1백25억6천9백만엔 NTTB형 20억1천4백만엔)이다.

1991년도는 제8차어항정비장기계획의 제4차년도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도를 올리기 위하여 예산의 절대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어항관계 사업은 어항정비를 추진함과 아울러 어항이용 조정사업 및 마리노베이슨 지역에 있어서의 어항어촌정비를 계속해

漁村社會間接자본事業확충 日本水産會요망

일본 수산회 회장 丙村良英씨는 지난 7월3일 일본 수산청 京谷昭夫장관을 방문 1991년도 수산정책 확충에 대하여 요망했다.

丙村회장은 1991년도 중점시

나가며 신규사업으로서 ①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사업주체확대, 폐기물처리시설, 공공집합주택용지의 보조대상화 등) ② 해안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주차장, 운동시설의 보조대상화) 등이며 또한 어항해안사업의 신규의 하나로 어항의모래사장 재생사업이 있다.

책으로서 ① 어촌지역 사회자본정비의 확충 ② 자원관리어업의 추진과 정착화 촉진 ③ 공해 및 해외어장에 있어서 조업 등의 확보 ④ 수산물의 소비확대와 가공유통대책의 충실화 ⑤ 노동력의 확보를 포함한 경영안정대책 확충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망했다.

이에대하여 京谷장관은, ① 어촌지역의 활성화대책 확충과 자원관리형어업의 추진을 위하여 종합대책의 실시와 ② 수산물의 유효이용과 가공유통의 촉진, 소비확대 ③ 해외어장 확보와 해외어업협력의 확충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표명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서 어항건설, 제3차 연안정비, 재배어업과 자원관리형어업의 추진을 위한 생산기반의 정비, 공해어장의 유지, 합병·해상매입사업의 지원 등 해외어업유지체제의 정비 등과 경영안정대책의 추진, 조사연구사업의 확충, 고래종류 조사의 계속 및 포경의 조기재개, 어업정보·통신체제의 정비 등이라고 했다.

1991년도 수산관계예산요구 개요

(단위 : 백만엔)

사	항	1990년도 예산액1	91년도 기산 요구액
수산관계예산총액		333, 444	339, 766
비	공 공	103, 862	106, 512
공	공 (계)	229, 582	233, 254
일	반 공 공	229, 216	232, 975
통	상 분	194, 168	200, 292
어	항	160, 755	165, 825
연안어장정비		21, 228	21, 898
해	안	12, 185	12, 569
N T T	분	35, 048	32, 683
어	항	28, 828	26, 690
연안어장정비		4, 044	3, 979
해	안	2, 176	2, 014
재	해 복 구	366	279
특	별 회 계		

日, 全國漁港協會 通常총회 第8次 漁港整備計劃 促進등 확인

일본 전국어항협회는 최근 동경 아까사카푸린스호텔에서 통상총회를 개최하고 1989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와 1990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그리고 이사 3명과 감사 1명의 보궐선임도 실시하였다.

총회에 앞서 10년이상 오래 근속한 임직원 46명에 대하여 佐藤 회장으로부터 감사장과 표창장이 수여되었다.

1990년도 사업은 어항과 해안의 정비와 어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하여 수산업의 새로운 발전과 활력있는 어촌 만들기를 기하기 위하여 ① 제8차 정비계획의 촉진 ② 어항과 어촌환경의 정비 촉진 ③ 제5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의 책정에 역점을 두고 1990년도는 신규로 △ 어항·어촌현지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 우수사업의 표창제도를 새로 만들고 △ 어항미화운동에 공적이 있는 분들의 표창 등을 하도록 하였다.

日, 關東·東海地區 第33回漁港大會

일본국의 三重縣어항협회 주최로 제33회 관동·동해지구 어항대회가 1,000명이 넘는 관계자 가운데 三重縣志摩郡阿兒町에 있는 사회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①

제8차 어항정비장기계획의 촉진과 1991년도 예산의 확보 ② 어업집락환경정비사업과 어항환경정비사업의 확충강화 ③ 이도(離島)에 있어서 어항의 정비촉진



日, 國際航路會議 개최紀念展 21世紀漁港·漁村구상 등 紹介

국제항로회의 개최기념전이 일본 大阪市內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념전은 『항만·어항·교통·수송·건설』 등 각 분야의 개요와 기기의 전시 레저리조트에 관계되는 미래의 제안과 기술 및 최신의 상품전시, 기술의 소개 등을 하기 위하여 개최되어 179개 기업과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5일간의 내방객은 약 4만명에 이르렀다.

주된 출품중에서도 수산과 관련이 있는 것은 수산업을 핵으로

④ 제5차해안사업5개년계획의 조기수립과 1991년도 예산의 증액 확보 등 4개 항목을 채택하였다.

또 참가자들은 安乘어항과 奈屋浦어항 등을 시찰하고 해산하였으나 동대회에 참석한 佐藤 夫 전국어항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제8차어항정비사업의 추진과 특히 늦어지고 있는 어항어촌환경정비사업 촉진을 강조하였다.

하는 연안지역과 근해수역의 종합적인 정비개발구상의 입체적인 모형에 의한 마리노베이손구상의 소개와, 마리노베이손 구상에 입각한 어항, 어촌·수산도시의 지역정비 개발구상에 대한 전시 등에 의해서 21세기를 향한 어항·어촌구상이 소개 되었다.

또한 기술소개에서는 조립식다각부체구조물(組立式多角浮體構造物), 소파구조물(消波構造物) 등 새기술이 다방면으로 소개되었다.

日, 漁港內遊漁船대책 樹立 漁船과의 紛爭防止하러

어항내에서 어선과 유어선 등의 분쟁(紛爭)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 수산청은 1990년도부터 '어항이용조정사업'을 실시하여 어항시설 옆에 유어선의 전용박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제3의 분야 등 민간의 참가를 얻어 행할 계획으로 있으나 종래의 어항시설 관리운영 방법과 틀리는 점이 많고 이러한 조사, 연구, 검토를 하기 위하여 1989년 3월에 전국의 현(縣)·市町村, 어련·어협을 회원으로 '어항이용조정시설운영연구회'를 발족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연구회에 사

업계획연구부회, 관리·제도연구부회, 시설경영연구부회, 어장이용조정연구부회 등 네 개의 부회를 설치하고 이 중에서 각 분야에서 문제점 도출과, 정리 검토를 하였다. 따라서 지난해의 검토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관리, 경영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특히 어항이용조정시설의 관리에 대하여는 유어선과 어선의 분쟁이 근년에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점과 유어선 등의 해난사고가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 그 제도를 확립할 목표로 검토를 시작한다.

로젝트로 소파제의 재료 및 구조, 유지관리와 임해역의 이용방법, 녹화기술의 연구를 추진, 올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항과 블록을 합친 슬릿형, 강판셀형 등 6종류를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는 수심 10m에 설치할 경우 1m당 약 1천만엔으로 테트라포트 등으로 만드는 제방(1m당 700~800만엔)에 비해 다소 많이 소요되나 이보다 경관이 뛰어나고 메인터너스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다.

漁港레저基地로 海岸線 활용

머린멀티존(MMZ)計劃수립, 91년부터 事業추진

일본 건설성은 파도에 의한 해변의 침식을 방지하여 해안을 해양레저기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머린멀티존(MMZ)계획'을 세우고 이를 제5차 해안사업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내년부터 전국 수곳에서 사업화하기로 했다.

건설성은 산하 토목연구소에서 올해안으로 이 계획의 중추시설이 되는 투과형 소파제방에 대한 연구를 완료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실제시공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것.

일본의 해안선길이는 약 3만4천300km로 지구원주의 90%에 해당하는데 건설성은 이처럼 긴

해안선을 적극적으로 활용, 워터프런트 개발 해양성레크리에이션 부문에 이용키로 한 것이다.

머린멀티존계획은 바다물의 투과성을 확보하면서 파랑을 약하게 하는 소파제를 수심 10m지점에 설치, 안쪽에 정온구역을 만들어 머린스포츠 양식장 등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파도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아울러 임해역에 레크리에이션 시설 호텔 등을 정비, 해양리조트지로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도 비중을 두고 있다.

건설성은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난 87년부터 종합기술프

漁港利用조정 施設 관리運用 등 檢討 과제 協議

일본 어항이용조정시설 관리운영 연구회는 지난 7월5일 농림수산성 공용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지금까지의 각부회 활동사항의 정리와 금년도 각부회 과제 및 활동계획 등을 협의했다.

금년도 이후의 각부회 검토과제로서 계획부에서는 ① 각부회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계획에 대한 경신 ② 민간도입수법의 검토 ③ 종합적 시설정비의 계획수법의 검토(유어선 등 이용시설과 기타 위락시설 등)를 그리고 관리부회에서는 6월중에 『어항이용 조정시설 이용규칙(예)』을 부회로서의 안을 작성하고 그리고 『어항이용 조정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했다.

운영부회에서는 ① 이용자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방책검토 ② 요금설정 및 징수방법의 검토 ③ 경영에 관한 메뉴얼 작성을 한다. 그리고 어장부회에서는 ① 어장과 레크레이션활동 구역과의 경합이 심한 지역에서의 현상과 동향을 파악하여 행정적인 대응책의 검토 ② 우량사어의 검토 ③ 유어선 등의 이용자, 어항관

리자, 어협과의 토의를 통하여 행정적인 대응책을 검토한다.

또한 유어선의 소유자, 이용자, 이용형태 등에 관한 상세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한 시책과 제도를 생각해 낼 수 없기 때문에 기초조사의 하나로써 형태별로 모델지역을 선정하여 철저한 조사를 2년간에 걸쳐 실시하는 등 급후의 검토과제로 채택했다.

海上都市건설 具體化 土地구성 技法發展

연약지반의 토지구성기법을 이용하여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연착도구상' 이 일본 건설계에 의해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연착도구상' 에는 기존의 토지구성기법인 '침매공법' 을 발전시킨 '연착공법=SL (Soft Landing) 시스템공법' 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공법은 사전에 굴삭한 해저지반에 물보다 조금 무거운 비중을 가진 인공섬을 연착육시켜 해상도시를 건설하는 공법.

구상에 따르면 해상도시는 직경 2km 연면적 600ha 규모의 원형도시로 되어 있는데 주택, 업무·상업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또 이 해상도시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1조5천억엔, 공기는 10년으로 각각 추산되고 있는데 종전의 매립공법에 비해 약 30% 이상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이와관련 일건설계는 이 구상의 기본이념이 '자연과 기술의 조화' 에 있다고 밝히고 자연에 대해 무리가 없는 형태로 하여 100년후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의 경우 이 구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도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SL시스템공법의 기본원리는 부력을 받는 구조물의 무게가 굴삭한 흙의 무게보다 가볍도록 하여 컨트롤하도록 되어 있다.

시공순서는 좌우에 내경 25m 인 사력탱크를 갖춘 100m×100m의 RC조 SL유니트를 △임해부 드라이도크에서 건조, 해상예항한다. △건설지점에 다르면 사력탱크안으로 물을 넣어 사전에 굴삭한 해저지반(수심 15m 지반을 연착시킬 부분만 10m굴삭한다)에 연착육시킨다. △시설공사때나 완성후에는 사력탱크내의 수량을 조절,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연착시킨 SL유니트를 원형으로 연결, 직경 2km의 해상도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다.

일건설계는 동경만의 깊이를 감안, SL유니트의 높이를 35m로 하여 수심 15m지점에 연착시킬수 있도록 함에 따라 10m는 해상으로, 25m는 해중으로 가라

앉게 된다.

연착도는 연약한 해저지반위에 건설되는 인공섬이기 때문에 지진 파력 조력 등 외부힘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일건설계는 지진의 영향에 대한 해석과 실험을 실시중이다.

그러나 파력 조력 태풍 등에 대해서는 모델을 설정, 실험한 결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인공섬 해상도시는 100m×100m의 SL유니트 약 60개를 연결시킨 직경 2km의 원형구조로 되어 있는데 연면적 600ha에는 주택(1만6천호 210ha), 업무시설(160ha) 등이 들어서며 상주인구는 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 원형도시로 둘러싸인 내해의 중앙에 인공섬을 만들어 요트 및 수상스키 등 레저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이밖에 인공섬 해상도시로의 진입로는 종전의 침매터널로 연결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인공섬은 종전의 인공섬과는 달리 만안이라는 일정한 조건만 충족시켜 주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건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日本漁港 정비 促進 議員 聯盟 새會長에 田村元의원

국회의원의 어항관계인으로 구성된 어항정비촉진의원맹은 최근 동경 아까사까푸린스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먼저 참의원 선거에서 江藤隆美회장이 낙선되었기 때문에 후임회장에 전 회장이었던 田村元의원(전 衆院議長)의 취임을 결정하였으며 田名部 간사장은 유임되었다. ㉔